KIA 마운드 젊고 강해졌다

윤영철

곽도규

황동하

윤영철, KT전 승리 리그 연착륙
곽도규, 공격적 투구로 불펜 활력
황동하, 빠른 템포·제구에 눈길

'호랑이 군단'의 마운드가 더 젊고 강해졌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치열한 마운드 경쟁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뜨거웠던 5선발 경쟁 끝에 자리를 차지한 '특급 루키' 윤영철이 매 경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윤영철은 지난 31일 KT전에서 타구에 발등을 맞으면서 6회를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5.1이닝 1실점의 승리투수가 됐다. 김종국 감독도 1일 "계산이 서는 선수다"고 언급할 정도로 윤영철은 KBO리그에 연착륙했다.

윤영철로 시작한 이 경기에서 젊은 불펜진의 활약도 눈길을 끌었다.

시범경기에서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던 좌완 사이드암 곽도규가 2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갖고 다시 1군 마운드에 올랐고, 시즌 전 연습경기에서 '빠른 템포'와 제구로 눈길을 끌었던 황동하도 7-1로 앞선 9회초 프로 데뷔전에 나서 삼자범퇴로 첫 등판을 끝냈다.

공격적인 투구를 자랑하는 곽도규와 황동하는 각각 고졸 루키, 고졸 2년 차 어린 선수다.

세밀함을 더해 돌아온 곽도규는 "부족했던 점 보완하려고 했고, 급하게 생각 안하고 2군 경기에 최선을 다했다. 공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시합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시합적인 부분에서 보완하려고 했다"며 "투심 제구에 신경 썼고, 아쉽게 생각한 부분 조율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부분을 더 다듬는 데 신경 썼다. 후회 없이 싸우겠다"고 밝혔다.

잊지못할 데뷔전을 치른 황동하도 "공격적으로 하는 게 내 스타일이다. 자신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황동하는 지난 2012년에 창단된 정읍 인상고 출신의 첫 KIA 선수다. 그만큼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프로 데뷔전을 기다렸다.

황동하는 1일 "경기 잔상이 남아서 잠을 못 잤다. 어제가 내 인생에 가장 긴장이 많이 했던 것 같다. 불펜에서 몸 풀 때부터 바닥에 던지고, 날리기도 했는데 올라가서 잘 던진 것 같다"며 "타자 얼굴도 안 보고 (신)범수형 미트만 보고 던졌다. 팬들도 안 보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웃었다.

긴장감 가득했던 경기 결과가 좋았지만 아직 보여줄게 많다.

황동하는 "긴장을 덜한 상태에서 던져봐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구종도 안 던지고 직구만 던졌다. 다른 것 던질 생각할 정신도 없었다"며 "직구만 던지는 스타일은 아니고 섞어가면서 하는 스타일이다. 변화구 컨트롤도 자신 있어서 다음에는 섞어가면서 던지겠다. 작년까지는 커브가 좋았는데 올해는 슬라이더 연습 많이 했고, 커터가 자신 있다"고 설명했다.

빠른 템포도 황동하의 트레이드 마크다. 공을 잡으면 바로 자신 있게 공을 뿌리면서 연습경기에서 김종국 감독에게 제대로 어필을 했었다.

황동하는 "제주도 마무리캠프를 못 갔는데 세상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감독님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연습경기) 기회가 생겨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마음 먹고 던졌다"며 "구속이 그때는 빠르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템포 빠르게 가는 것이었다. 그 것을 잘 살려서 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코치님이 빠르게 던지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셔서 도움이 됐다"며 "후배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는데 동기 부여 된다고 연락 받아서 기분 좋다"고 밝혔다.

스피드도 지난해 평균 구속보다 3~4㎞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과감한 승부가 황동하의 힘이다.

황동하는 "첫 경기는 그냥 잡고 던지는 느낌이었는데 다음에는 폼을 더 보여드리겠다. 더 생각하면서 던지면 스피드로 더 잘나올 것 같다. 2군에서 선발 던지면서 142㎞ 아래로 내려가는 게 거의 없었다"며 "치라고 던지는 마음가짐으로 승부한다. 더 어려운 상황, 상대를 만나도 똑같이 던질 것 같다. 공격적으로 하는 게 내 스타일이다. 안타 맞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볼넷 주면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 타이트한 상황의 승부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좌타자에 자신 있다. 좌타자 몸쪽을 던지는 상상을 하고 있다. 무조건 삼진을 잡겠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광현·이용찬·정철원 "WBC 기간 음주 사과"

"KBO 조사 결과 겸허히 수용"

프로야구 SSG 랜더스 좌완 투수 김광현(34)과 NC 다이노스 우완 투수 이용찬(34), 두산 베어스의 오른손 투수 정철원(24)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 기간 음주한 사실이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광현은 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2023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전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 나타나 팬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구단을 통해 "WBC 대회 기간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사과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미디어 여러분들, 팬분들 앞에 서게 됐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제대회 기간 생각 없이 행동했다는 점에 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그린다"고 밝혔다.

이어 "팀의 베테랑으로 생각이 짧았고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며 "한국야구위원회(KBO)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

이용찬은 같은 날 두산 베어스와 홈 경기가 열리는 창원NC파크에서 취재진과 만나 "팬들과 모든 관계자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저는 대회 기간 중 휴식일 전날 지인과 함께 도쿄 소재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인근 주점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머무른 후 곧바로 숙소에 귀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국제대회 기간 중 음주를 한 점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KBO (조사)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현의 안산공고 후배인 정철원도 이날 음주 사실을 공개하며 같은 장소에서 사과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WBC 1라운드 기간 술집에서 음주했고,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익명으로 해당 사실을 보도했다.

KBO 사무국은 대표 선수를 배출하지 못한 유일한 구단인 한화 이글스를 뺀 9개 구단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은 술집을 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일본프로야구팀과 평가전을 오사카에서 치르고 본선 1라운드 장소인 도쿄로 이동한 3월 7일과 경기가 없는 휴식일(3월 11일) 전날인 10일 오후에 술을 마셨다고 선수들은 주장했다.

/연합뉴스

SSG 랜더스 김광현이 1일 WBC 대회 기간 음주한 사실이 있다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KBO 올스타 후보 발표 … KIA 양현종 등 12명 포함

팬 투표 5일부터 25일까지

'별들의 잔치'에 도전하는 KBO 올스타 후보가 공개됐다

KBO는 1일 2023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 '베스트12' 후보를 발표했다. 이번 올스타전은 7월 15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며 드림 올스타(SSG, KT, 삼성, 롯데, 두산)와 나눔 올스타(KIA, 키움, LG, NC, 한화)로 팀이 구성된다.

KBO는 각 구단이 포지션별로 추천한 후보 120명 중, 양 팀의 '베스트12' 총 24명을 선정한다. 투수는 선발, 중간, 마무리 3명으로 나눠 선발한다. 외야수도 3명을 뽑는다.

KIA에서는 양현종(선발), 최지민(중간), 정해영(마무리), 한승택(포수), 황대인(1루수), 김선빈(2루수), 류지혁(3루수), 박찬호(유격수), 소크라테스·고종욱·이우성(이상 외야수), 최형우(지명타자)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팬 투표는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신한SOL 앱, KBO 홈페이지, KBO 공식 앱을 통해 진행된다. '별들의 별'은 팬 투표(70%)와 KBO 리그 선수단 투표(30%)를 합산해 선정한다.

지난 시즌 최다 득표 1위를 차지했던 양현종은 (141만3722표) 이번 시즌에도 1위 자리를 노린다.

역대 2시즌 연속 올스타전 팬 최다득표를 차지한 선수는 85-86시즌 김봉연(해태), 90-91시즌 이만수(삼성), 92-93시즌 한대화(해태), 97-98시즌 양준혁(삼성) 등 총 4명이다.

KBO리그 미래들의 도전에도 눈길이 쏠린다.

1년차 고졸 신인 박명근(LG)이 중간투수, 김민석(롯데)이 외야수 후보에 올랐고, KIA의 마무리 후보로 떠오른 최지민과 함께 박찬혁(키움), 박영현(KT), 이재현(삼성), 황성빈(롯데), 문동주(한화)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스타전 단골손님 강민호(삼성)와 김현수(LG)의 이름도 빠지지 않았다.

강민호는 2007시즌을 시작으로 총 11차례, 김현수는 2009시즌을 시작으로 9차례 베스트12에 선정됐다.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는 '베스트12명'과 감독 추천 선수 13명을 더해 각각 25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한편 KBO는 이번 2023 올스타전을 앞두고 나눔·드림 팀의 색상을 기존 빨강, 파랑에서 각각 치유를 상징하는 보라와 희망을 의미하는 노랑으로 변경했다. 또 팀 로고 디자인은 부산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 맞춰 부산 광안대교의 풍경 특징을 살려 제작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세비야 선수들이 1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에서 열린 AS로마(이탈리아)와의 2022-2023 UEFA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승리한 뒤 우승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로파 제왕' 세비아 7번째 우승

승부차기 끝 AS로마 꺾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세비야가 통산 7번째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챔피언에 오르며 '유로파리그 제왕'의 입지를 더욱 확실히 다졌다.

세비야는 1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에서 열린 AS로마(이탈리아)와의 2022-2023 UEFA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연장 120분 혈투 끝에 1-1로 승부를 내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4-1로 이겼다.

이로써 세비야는 유로파리그 역대 최다우승 횟수를 7회로 늘리며 유로파리그에 최적화된 팀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했다.

반면 1990-1991시즌 유로파리그 준우승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AS로마는 '우승 청부사' 조제 모리뉴 감독의 지휘 아래 32년 만에 결승에 올라 역대 첫 우승에 도전했지만 승부차기 고비를 넘지 못했다.

이날 결승전을 관통하는 주제는 '승률 100%'였다. 세비야는 앞서 6차례 유로파리그 결승에 올라 모두 우승을 맛보며 '유로파리그 결승 승률 100%'를 자랑했다.

이에 맞서는 AS로마의 모리뉴 감독 역시 5차례 치른 유럽클럽대항전 결승에서 모두 우승을 지휘하며 '승률 100%'를 작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승전 승률 100%'의 맞대결에서 마지막에 웃은 것은 세비야였다.

'유로파리그의 최강자' 세비야의 저력은 승부차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세비야의 선축으로 시작한 승부차기에서 AS로마의 두 번째 키커 만치니의 슈팅이 세비야의 골키퍼 야신 부누의 선방에 막혔다.

AS로마의 선제골을 도우며 웃음을 지었던 만치니는 자책골에 승부차기 실축까지 이어지며 고개를 떨궈야 했다.

/연합뉴스